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I. 글로벌 지표 정의 <4유형>

지표명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한 국가의 전체 인구 또는 후생(소비 또는 소득) 하위 40% 인구의 실질 소비 또는 소득의 연간 평균 성장률. 약 5년 주기의 가구조사 자료로 계산함. 목표 인구를 하위 40%로 정한 것은 현실적 절충안임. 하위 40% 기준은 후생 분포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별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정의된 수치적 목표가 없음
정의	공동 번영의 향상에는 경제성장과 형평성 모두 필요함. 경제적 후생의 향상을 위해 성장이 필요하지만 그 이익이 최빈곤층에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따라 발전이 측정된다는 것을 공동 번영으로 인식함. 포용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경제성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층의 번영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소득이나 소비에 기초하여 공동 번영을 측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많은 복지 차원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소통하기 쉬우며 측정하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임. 실제로 공동 번영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웰빙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맥락에서 공동 번영을 분석할 때는 다양한 후생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글로벌 지표 링크	■데타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0-01-01.pdf

■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